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 (순천시제7선거구)
(책자형 선거공보)

신대지구

일한 사람!

일할 사람!

3

조국혁신당
신대지구

3

홍성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의원 후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 (순천시제7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3	조국혁신당	홍성훈	남	1975. 02. 28. (51세)	회사원	진주산업대학교 융합기술공과대 학 기계공학과 졸업 (현 경상국립대학교)	(현)순천 신대지구 중흥2차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전)순천 신대지구발전 위원회 위원장

2. 재산상황 및 병력사항

재산상황(천원)					병력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497,348	582,348	△85,000	없음	없음	육군 병장 (만기전역)	해당없음	해당없음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57,498	0	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징역1년 집행유예 2년 (1996.08.22)
후보자	57,496	0	0	
배우자	2	0	0	
직계존속	부:신고거부			
직계비속	0	0	0	

4. 소명서

30년 전 펙트체크

01

음주운전을 했는가?

아닙니다. 회사 업무 중 교차로에서 차대차 (시속15km 운행 중) 사고

02

뺑소니를 했는가?

아닙니다. 20살때 직장 상사의 권유로 직장상사 차를 운전 중 사고

03

사고처리를 하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직장상사의 지시로 회사에서 대기하고, 직장상사가 사고처리 함

그런데 왜??



30년 전, 사회초년생이던 (20살) 저는 첫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상사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사고(차대차)를 겪었습니다. 당시 상대측은 약 2주간의 치료를 받았으며, 사고 이후 상사는 “회사에서 해결하겠다”며 회사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부정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어렸던 그날의 제 행동을 지금도 안타깝게 여기며, 늘 부족함과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홍성훈은

신대지구 중흥2차 아파트
하자 소송 승소 및 입주민 권익 보호

신대지구 3대 인프라 정상화 촉구,
학교 · 학부모 네트워크 활성화

10년 + 신대지구의 교통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활동

헌혈 릴레이, 환경정화, 장학금 전달,
구호물품 전달 및 장수사진 촬영

신대지구에 정착한 후,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꾸준히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 현)** 신대지구 중흥2차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전)** 신대지구 발전위원회 4,5,6대 위원장
- 전)** 신대지구 E1부지 정상화 촉구 위원회
- 현)** 순천교육발전협력위원회 회장
- 전)** 순천지역고등학교 운영위원장 2회 역임

- 순천공업고등학교 졸업 (24회)
- 순천공업전문대학교 건축설비학과 (현 순천제일 대학교) 졸업
- 진주산업대학교 융합기술공과대학 기계공학과 (현 경상국립대학교) 졸업

‘동부청사 확장’ 전남 교육청사 유치

제대로 된 교육·복지 홍성훈은 가능합니다.

신대지구 대형 놀이터 개설!

스크린 파크골프장 개설!

청사 내 구내식당 개방!

버스터미널 유치!

‘신대지구’ 맞춤형 고등학교 유치

제대로 된 고등학교
홍성훈은 가능합니다.

통학거리 부담 제로!

그린스마트스쿨!

고교학점제 완성!

IB교육과정 도입!



‘부영CC’ 협약

신대 주민 그린피 할인
 정기 체험 프로그램 도입
 정기 이벤트 (해맞이,달맞이) 개최

신대지구
 대표후보

홍성훈

포스코 그룹사 기숙사 유치

상권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인구 부족입니다.
 사람을 부르는 정책
 상권을 살리는 정책 입니다.

로켓공약#4





신대천 가족문화거리

대형 전광판 설치 (단체 응원·관람)
 소무대 운영 (상시 버스킹, 소공연)
 정기 페스티벌 (가족 먹거리 행사)

일한사람
 일할사람

홍성훈

특별시·순천시·지역단체 의정협력 협의체

3대 핵심부지 공동 대응 트랙!
 성산역 활성화 추진!

당과 이념을 떠나
 오직 신대지구를 위해
 '홍성훈'이 중심이 되어
 협의체를 만들어 진행하겠습니다.



**‘신대지구’는 이미 최고입니다.
‘교육과 행정’은 아직도
걸음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합니다.

Change **‘신대지구’**

‘홍성훈’이 앞장 서겠습니다.

6월3일